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박차

6월 2차 공모 도교육청 공동 신청
생태 특화교육·맞춤형 인재 양성
지·산·학 거버넌스 구성·협력 지원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영단계에서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별교부금으로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오는 6월에 예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 지역자원 연계 공동교육과정 마련으로 융합 교육 추진

시는 우선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도시 브랜드와 문화콘텐츠 선도 도시를 지향하



순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순천시 제공

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정원, 순천만 등 지역자원을 기반한 생태·환경 특화교육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자율형공립고 등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및 융합교육을 통해 지역의 특화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을 육

성해 K-디즈니 순천에 걸맞은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 특화산업 연계 전문 인재 양성하고 통합형 돌봄 구축

시는 K-디즈니 순천 조성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특구 등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학생들이 진학, 취업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대학 30-RISE 체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 대학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발굴 방안도 모색

한다. 지역이 함께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등 유보통합 교육과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질 높은 영유아·청소년 지역돌봄 생태계 기반도 마련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산·학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모델 및 교육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한다.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관내 3개 대학, 학교, 기업체, 교육단체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는 내달 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협력체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각 기업체 및 유관기관 간 소통 및 교육발전 특구 운영 관리 등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 청년의 미래 전략산업 분야 취업·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가정의 달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내달 31일까지... 월 최대 50만원

순천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던 할인율 5%에서 2배 상향된 할인율 10%의 특별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축협, 원협, 낙협 등 5개 은행 48개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모바일형(카드 또는 QR)은 ‘지역사랑핀 칩(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 모바일형 통합해 월 최대 50만원까지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는 지난 26일 재가암 환자 및 가족 55명을 대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4년 2차 자조모임 ‘가족사랑 나눔터’를 운영했다.

순천시 제공

자조모임 ‘가족사랑 나눔터’ 운영

재가암 환자·가족 대상
디퓨저 만들기 등 활동

순천시는 지난 26일 재가암 환자 및 가족 55명을 대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4년 2차 자조모임 ‘가족사랑 나눔터’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순천의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인 스페이스 브릿지와 스페이스 허브 등으로 새롭게 단장된 정원의 모습을 관람하며 봄의 기운을 물씬 느꼈다.

또 자연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라피가든을 방문해 오감을 자극하는 ‘디퓨저 만들기’ 프로그램 활동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외부활동 기회가 적었는데, 모처럼 정원의 꽃향기를 집에서 느낄 수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749-66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27일 순천시 개최 ‘2024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전국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 성료

올바른 걷기 자세 등 건강법 전달

순천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4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강원도 홍천, 인천, 대전 등 20개 도시의 사전 신청 접수자 5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은 자연에서 즐기는 유산소 전신 운동으로 자세 교정과 체력 향상, 기분전환에 탁월하다.

순천시는 정원, 숲, 향, 한방, 갯벌, 해양 등 천혜의 자연이 뛰어난 웰니스 도시로, 노르딕 워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도시다.

엘리트부(5km) 205명과 비기너부(1km) 303명이 접수한 이날 대회는 오전 그린광장과 순천만 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 코스로 운영됐다.

앞서 참가자의 68%가 비기너(초보자)부에 접수해 웰니스 노르딕 워킹을 배우려는 이들이 많았다.

시는 노르딕 워킹 폴을 사전 준비해 초보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에게 노르딕 워킹 기본자세, 스트레칭법, 올바른 걷기 자세 등 일상생활 속 건강법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대행사로 산림치유사가 직접 플루트를 연주해 음악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치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허브 벌레 퇴치제 만들기 코너가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한 참여자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 너무 좋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매일 가족들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웰니스 노르딕 워킹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걷기를 실천하는 인구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순천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